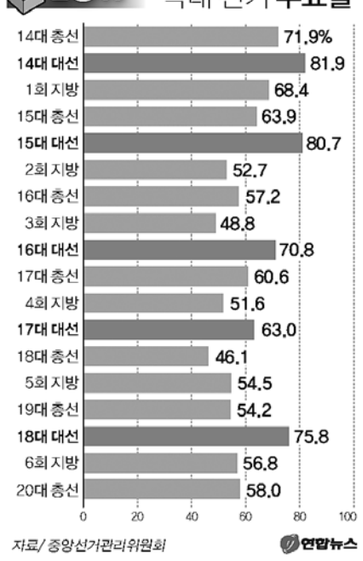
“텃밭 탈환” “호남 사수” 文·安 경쟁에 표심 뜨거웠다

광주·전남 사전투표율 높은 이유

광주 ‘전국 3위’·전남 2위

문·안 캠프 “지지층 결집”



꼭 투표 하세요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앞에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문 판 댄스팀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대통령 선거로는 처음 실시된 제19대 대선의 광주와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배경에는 야권 후보 1명이 결정되면 ‘몰표’를 줬던 역대 대선과 달리 야권 후보 2명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선거 초반부터 막판까지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 19대 대선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은 각각 33.67%, 34.04%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중 세종시(34.48%)에 이어 전남이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는 세 번째로 높았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야권의 텃밭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한 격돌을 벌이고 있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텃밭이었던 호남에서 국민의당에게 참패를 당한 만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설욕해 텃밭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당은 당내 최대 기반인 ‘호남 사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양당은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의원 등을 총동원해 지지층의 사전투표 독려에 나서는 등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애를 쏟았다.

이 때문에 양 당은 광주와 전남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각각 지지층 결집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 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수가 결집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야권표심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광주·전남에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던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첫 대결을 펼쳤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18.9%로 전국(평균 12.2%)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는 15.8%를 기록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광주·전남 전체 의석 18석 중 16석을 차지했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1석씩을 차지했다.

광주·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은 데는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만, 징검다리 황금연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 투표일 전날인 8일 휴가를 낼 경우 어린이날인 5일부터 선거일인 9일까지 4박 5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고, 2·4·8일 휴가를 내면 무려 11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까닭에 사전투표제를 이용한 유권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번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재보궐 선거라는 점도 투표 열기를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투표율은 각각 26.09%와 24.92%, 24.38%로 평균 수준을 기록했고, 충남·충북·대전 역시 24.18%, 25.45%, 27.52%로 평균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원은 25.35%, 제주 지역 사전투표율은 22.43%로 집계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대선 투표 캠페인 … #나는 _투표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하여

신형철 조선대 교수

문학평론가인 신형철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하여” 투표한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국문과와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한 그는 지난 2014년 조선대에 부임했다. 문체가 유려하고 작품을 보는 눈이 예리한 그는 대중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평론가로 알려져 있다. 문학평론가답게 그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후보를 투표 기준으로 삼았다.

신 교수는 “우리 주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차별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아픔과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하루 속히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사진=최현배기자 choi@

사전투표함 개표때까지 선관위 CCTV로 감시

지난 4~5일 양일간 실시된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결과가 담긴 투표함은 선거일 당일인 오는 9일 투표 마감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밀봉된 채 보관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지난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507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주소지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한 채 투표함에 넣었다.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는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인계돼 해당 구·시·군 선관위로 발송됐다. 반면 주소지 관할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투표지만 건네받아 투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했다.

이들 관내·외 사전투표 결과가 담긴 투표함은 이후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폐쇄회로)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 중앙선관위는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과 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감시한다면서 ‘철통 보안’을 강조했다. 이 사전투표의 투표함은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한 후 함께 개표에 들어간다.

/박지경기자 jkpark@

문재인-안철수 ‘호남 공 들이기’ 총력

文, 지지층 다지기 KTX ‘레일로드’

강원 산불 현장·충청 충주 방문 이어 광주로

安, 바닥민심 다지기 8.9㎞ ‘뚜벅뚜벅’

남광주시장·증심사·금남로·수완지구 등 누벼

5·9 대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규모 유세를 벌이며 선거 막판까지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문 후보는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고, 안 후보는 ‘뚜벅이 유세’로 바닥 민심을 훑으며 막판 대반전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문 후보는 7일 산불 화재러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이후 문 후보는 충청 충주로 이동해 집중 유세를 한 뒤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총력 유세를 펼치며 전날 광주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맞불’을 놨다.

문 후보는 이날 KTX로 내려와 다시 KTX로 올라가는 ‘레일로드 유세’를 펼치는 등 지도상 동쪽 상단에서 출발해 서쪽 하단으로 국토를 가로지르는 일정을 소화했다.

광주 유세는 전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광주 바닥민심을 훑고 간 것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보인데다, 선거 막판 지지층 다지기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고 개혁과 통합을 위해 광주와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동서화합과 민주세력 통합을 이룬 자신이 확실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여전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저울질을 하고 있는 부동층을 잡기 위한 호소로 보인다.

문 후보는 앞서 6일에는 서울 홍대 앞에서 22명의 유권자들과 프리허그 행사를 했다.

사전투표율 20%가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문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진짜 선거혁명의 완성은 9일인데 우리가 너무 일찍 김칫국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더 간절히 5월 9일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프리허그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걸어서 국민속으로’ 유세를 펼치고 있는 안 후보는 대구와 부산에 이어 세 번째 방문지로 지난 6일 광주를 찾아 바닥민심을 찾아 ‘뚜벅이 유세’를 벌였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남광주시장을 시작으로, 무등산 증심사 입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광산구 수완동 롯데아울렛 거리, 양동시장, 문화의 전당, 충장로, 대인시장 등을 훑으며 바닥민심을 잡는데 주력했다. 안 후보는 이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도보로는 총 8.9㎞ 거리를 1만2338보를 걸었다. 일부 시민들은 마실 물과 간식 등을 건네면서 “힘내라”고 응원했고, 일부 젊은 층들은 적극적으로 청년정책과 농촌정책 등을 건의했다.

충장로에서는 길목마다 자리한 인파와 인사말을 주고 받고 사진을 찍느라 문화전당~금남지하상가~파레스호텔~충장우체국~무등빌딩 유세현장까지 약 1.2㎞를 걸어가는데 꼬박 2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젊은 층들은 “와! 안철수다. 진짜 안철수야”라며 놀라는 표정을 짓다가도 “힘내세요”라고 덕담을 건넸고, 일부는 “안철수”를 연호하기도 했다.

이에 안 후보는“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화답했고, 먼발치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시민을 향해서는 주먹을 움켜쥐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몇 십 년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어떻게든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을 만나는 뚜벅이 유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와 부산, 광주 등 사흘째 걸어서 유권자들을 만났는데, 지역마다 세대마다 모두 변화하려는 민심을 봤고, 특히 30대 젊은층 부부들의 기대가 컸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30대 지지율이 좋지 못했는데, 이는 밑바닥 민심과 여론조사의 괴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사흘간 ‘걸어서 120시간’ 캠페인 영상을 인터넷에서 조회한 횟수는 140만 건(페이스북+유튜브)을 넘겼다고 안 후보측은 밝혔다. 페이스북 도달 수(게시물이 노출된 사용자 수)는 무려 600만 건에 달했고, 동시접속자수는 한때 사흘간 최대치인 5900명을 기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앞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분야
• 기감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2,100㎡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 (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 (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9100㎡ 매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융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답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3,070㎡ 매6.5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종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 문의 010-2572-4663